

기도의 제단으로 돌아갈 때 - 삶의 리듬

● 3일 -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아침 서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리하며,” (대상 23:30, 한글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역대상 23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의 성전을 돌보고 성전봉사를 하던 레위인들에게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올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 (출 25:8)으라는 또 다른 명령에서도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명령하십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출 29:39).

영적 경험 사이에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 매일 행하는 기본적인 영적 경험 사이에 살아가는 삶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매일을 시작하고 끝을 내야 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며 외부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노예생활에서 배운 이집트인들의 가치와 신앙,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행하려는 내면의 욕구와 싸워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과 가족이 따라야 할 경건의 양식을 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엘렌 화잇이 어떻게 이 신성하고, 엄숙한 매일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리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부조와 선지자, p. 353, 354)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리듬을 잃었다면 오늘, 아침저녁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시간(30-45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 역대상 23:30

“매일 아침 서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리하며,” (대상 23:30, 한글킹)

“매일 아침”

예수님, 우리의 하루를 당신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깨우사 당신의 임재 앞에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아 황급히 끝내거나 미루지 않도록 도와소서. 당신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매일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소서. 아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의 다양한 요구사항들, 불만들, 그리고 바람들을 내어놓기는 그렇게 빨리하면서 때때로 당신이 자동판매기가 아님을 망각합니다. 당신의 속성들과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과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작고 큰일들을 기억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찬양할 이유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저녁에도 그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당신과 함께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루 동안 당신의 신실하심을 몇 번이나 경험하였는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머문 채 잠들게 하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밖의 기도 제안들

감사와 찬양: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고백: 몇 분동안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인도: 현재의 도전과 결정을 위해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교회: 지역교회와 세계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각 구별된 기도요청을 참고).

지역교회의 요청: 교회 성도들, 가족,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경청과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찬양으로 화답하라.

찬양 제안

찬미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50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8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421장)

다른 찬양: 아침에 드린 내 기도; 빈손의 기도